

다시 푸는 경서

법구경

니원품(泥洹品) ③

我已無往返 아이무왕반
不去而不來 불거이불래
不復不復生 불물불부생
是際為泥洹 시제위이원

나는 이미 감도 돌아올도 없애
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
죽지도 않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

이 경지가 열반이 된다

如尾像無像 여시상무상
若樂為以解 고락위이해
所見不復恐 소견불부공
無言無疑 무언언무의

이와같이 형상의 있고 없음과
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벗어나면
보는 것이 다시는 두렵지 않고
말 아닌 말 결림이 없다

斷有之射箭 단유지사전
猶愚無所遣 구우무소의
是為第一快 시위제일쾌
此道寂無上 차도적무상

자못 이로운 일 족히 믿을게 못되며
비록 이겼다해도 오히려 괴롭다

있다는 생각이 쓰아대는 화살(집착)
끊고
어리석은 견해에 기대지 않으면
이것이 제일 유쾌한 일이요
이 도는 위없이 고요하리라

受尋心如地 수옥심여지
行忍如門關 행인여문역
淨如水無垢 정여수무구
生盡無彼受 생진무파수

욕됨을 담해도 마음은 대지같고
인공의 행은 밝아도 말없는 문자방
같으며
맑기로는 물갈아 때가 없으면
삶이 다하도록 그는 받은 게 없네

利勝不足恃 이승부족시
雖勝猶復苦 수승유부고
當自求法勝 당자구법승
已勝無所生 이승무소생

자못 이로운 일 족히 믿을 게 못되며
비록 이겼다해도 오히려 다시 괴롭다
마땅히 스스로 법의 승리를 구하여
그로써 이긴다면 더는 나지 않으리라

畢故不造新 필고부조신
厭捨無遊行 업태무음행
種性不復生 종초불부생
意慮如火滅 의진여화멸

옛 것을 마저 새 것 짓지 않고
맺집 싫거든 음행을 말라
씨앗 북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
뜻이 다하면 불이 꺼진 것 같다

胞胎為鐵海 포태위어해
何為樂受行 하위락음행
雖上有善處 수상유선처
皆莫如泥洹 개막여이원

태에 드는 것은 더러움의 바다 된다
무엇하러 음행을 즐길건가
비록 저 하늘에 좋은 곳 있다해도
모두 열반만은 못하다

悉知一切斷 실지일체단
不復著世間 불부착세간
都棄如滅度 도기여멸도
眾道中斯勝 중도중사승

이 것을 다 알아 일체를 끊고
다시는 세간에 집착하지 않으며

모두 버리기를 열반에 든 것처럼 하
면
은갖 길 중에서 이 길이 제일이다.

佛以現勝法 불이현제법
智勇能奉持 지용능봉지
行淨無瑕穢 행정무기에
自知度世安 자지도세안

부처님께서 진리의 법 밝히셨다
지혜와 용기로 이를 받아 지니서
행이 깨끗하고 더러움 빌리지 않으면
스스로 세상 건너는 것 알아 편안하
리라

道務先遠欲 도무선원욕
早服佛教戒 조복불교계
滅惡極惡際 멸악극악제
易如鳥逝空 역여조서공

도에 힘써 먼저 욕심 멀리하고
일찍이 부처님의 가르침 계율에 머
리조아려
악을 없애고 없애 그 끝에 이르러
새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쉬우리라

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은 가질 만
하고 이를 만한 가치있는 것은 아무것도
없다는 말을 들을 때, 그것을 남독도 하
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. 그러
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
람은 누구나 용기를 가지게 되고 환회에
넘치게 됩니다. 그의 마음은 사물을 지배
하고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지고, 어떠한
일도 지혜롭게 분명히 수행할 수 있게
되어 일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. 인간
이 자신의 일을 언제나 완전하고 결집없
이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항상
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무엇인가 가지
려 하고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것에 지
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. 결과적
으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못되고 일관
되게 착하고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될
수 없습니다. 실패와 같은 경험은 욕망의
노예가 되어있다는 근본적인 원인에서
찾을 수 있습니다.

사물의 참본성을 알게되는 것이 모든
불자의 진정한 목표입니다. 그것이 우리
를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.
우리들이 세속적인 이익, 부, 지위나 명
예 혹은 내생에 천상에 나는 것과 같은
복이든 아니면 자유의 결실로써 초세속
적인 열반을 바라든지, 그 어느 것에 관
계없이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올
바른 지혜와 통찰력에 의한 것입니다. 우
리들은 통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경전
에 말하기를 우리들은 다름아닌 지혜를
통해서 정화된다고 합니다. 일체 모든 것
에 대해 조금이라도 가치있는 것은 지금
까지 존재해 있지 않았고, 현재에도 없
다는 분명한 자각과 통찰을 가지는 데
자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.

우리들은 세속적으로 상대적인 가치
기준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
있고 무엇인가가 되어 있습니다. 일반적
으로 우리는 '이러한 것이고 저러한 것
이다' 라고 말합니다. 왜냐하면 어떠한 사
회에 있어서든 명성이나 직업과 동일시
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
우리들은 상대적인 가치기준에 비추어서
'이러한 것이고 저러한 것이다' 라는 것
을 믿어서는 안됩니다.

그렇게 하는 것은 귀뚜라미처럼 행
동하는 것입니다. 즉 귀뚜라미의 얼굴이
먼지로 뒤덮일 때 방향을 잃고 혼란하게
되어 죽을 때까지 서로 물고 뜯습니다.
우리 인간도 얼굴이 먼지로 뒤덮일 때,
즉 모든 욕망과 미혹의 지배하에 있을
때는 너무 당황하거나 방향을 잃게 되어
정상적인 환경에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
행위에 역행하게 되어 심지어 살생까지
하게 되는 것입니다.

그러므로 한 사회 내에서 수단을 위해
서는 필수불가결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
것도 아닌 상대적인 가치에 맹목적으로
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. 우리들은 몸과

어름목집 해외스님 특별 설법

“실패의 원인은 욕망에 있어요”

타니사로 스님 美 메타사원 원장



약 력

- 1942년 미국 캘리포니아 초
- 1966년 아산 리 담마라오에서 수학, 두타행
- 1971년 캘리포니아 메타사원 개원
- 저서: <불교사원의 상징적 의미> <깨달음의 날개> <불과 같은 마음> <이상은 부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본래 없는 것인가> <선들의 경제학> <공(空)> <마음챙김과 집중의 길> 등

에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가장 초연한
상태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.

각성과 깨달음은 오욕락에 집착하고
매달리는 어리석음에 진절머리가 나게될
때 일어납니다. 각성이 자리잡게 되는 순
간, 해방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자동적
으로 일어나게 됩니다. 그것은 마치 콧
털이 풀어지듯이, 옷에 물들인 물감
이 적당한 세제에 섞여서 빨 때에 씻겨
져 나가듯이 정화됩니다. 집착이 자유로
전환되거나 세속이나 집착의 대상에서
이탈되어지는 과정을 부처님께서는 해탈
이라고 불렀습니다. 이 단계는 완전한 자
유를 향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. 이
정도까지 자유로워졌을 때, 고통으로부터
의 완전한 자유는 보장됩니다.

일단 의욕이나 감정, 그리고 관념으로
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다시는 이 세상의
노예가 되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욕망,
성냄, 어리석음의 오염된 것으로부터 순
수해지고 정화되어집니다. 이러한 실재적
인 순수함은 일단 달성되지만 하면 혼돈,
투쟁,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평
온과 초연함을 가져옵니다. 이와 같은 혼
돈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처님은
'평화'라고 불렀습니다. 그것은 모든 경
계에서 평화로움과 초연함을 유지하는
것이며 바로 현재 생활에서 일종의 열반
을 체험하는 한 방법입니다.

부처님께서 가르친 열반은 단순히 세상
의 조건성과 모든 사람의 불성을 발견함
으로써 구속·고뇌·고통으로부터 자유로
워진 상태, 그리하여 모든 집착에서 벗어
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. 사물의 본성을
직시하는 지혜의 위대성을 인식하고 여러
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 지혜를 개발하기
위하여 정진해야 합니다. 그 한 방법으
로써 우리들은 마음의 정화로부터 오는 기
쁨을 광산으로 개발하여 지혜가 저절로
자연적으로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그러면 지혜가 일어나고 마음은 지금까지
붙잡아 왔고 매달려 왔던 대상에 대한 모
든 욕망을 버릴 수 있습니다. 마음은
'나' 혹은 '나의 것'으로 간주했던 대
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객관적인 사물
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은 사라집니다.

“외부의 대상이 지배하면
오욕락의 노예 됩니다
탐진치에서 해방돼
평화·열반 체험 하세요”

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참본성
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. 특히 그것
의 무상·고·무아성을 알아야 하고 항
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부나 지위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 수
없다고 느끼는 것 등에 관해서는 "이것
은 이러한 것에 속하고, 저것은 저러한
것에 속한다"고 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
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상대적인 가치
로 간주하십시오. 그 법칙은 우리가 소유권
에 집착하지 않게 지켜줍니다. '나의 것'
이라는 관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
입니다.

우리는 물건을 단순한 편의를 위해서
소유해야 하지, 그것들이 우리들 마음을
지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 이러한 지혜
를 분명하게 가질 때, 대상은 우리들의

하인 또는 노예가 되고 우리들이 그것에
의해서 수동적으로 지배를 받기 보다는
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
니다. 만약 우리들의 생각이 욕망이나 집착
의 길로 가서 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저
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의식하고, 이러
한 관념에 굳게 매달린다면, 대상이 우리
를 지배할 것입니다. 우리들은 자신의 삶
을 재산, 명성, 부나 혹은 무엇이든지 소
유하려는 투쟁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
움으로 보낼 것입니다. 그리하여 그것의
지배를 받아 오욕락의 하인이나 노예로
떨어질 것입니다. 상황이 이렇게 되기 쉬
우니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. 우리들은
외부의 대상에 초연해야 하고 그것을 지
배해야 합니다. 모든 욕망을 잠재워야 하
듯이 우리들이 집착했던 것이 사라질 때

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

이계진 아나운서가 숙취절 홍보 보좌관!



" 불교텔레비전 '우리절 우리스님'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."
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.
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
프로 '우리절 우리스님'에 나가 풀어놔주세요.
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집니다.

* 출연문의 : 불교TV 영상사업부 02)3270-3368

우리절 우리스님

방송시간
(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)
매주 화요일
09:10~10:00
13:25~14:15
22:00~22:50
매주 일요일
18:40~19:30

*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



불교 TV
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